

주목할만한 판례

**인센티브가 임금인지 여부(서울중앙지법 2021. 6. 17. 선고 2019
가합542535 판결)**

서울중앙지방법원은 피고 회사가 원고들에게 지급해 온 인센티브(PS, PI)가 평균임금으로서 퇴직금 산정 시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에서 ① 피고 회사의 HR규정에서 '임금'이 '월급여, 상여, 인센티브·연차수당'으로 구성된다고 정하고 있는 점, ② 개별 근로자들이 피고 회사의 경영성과에 직접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기 어렵다는 사정만으로 인센티브가 근로의 대가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, ③ 이 사건 인센티브는 2000년 이래 매년 지급되어 왔고, 근로자들의 전체 급여에서 차지하는 비중 또한 상당하므로 인센티브 액수에 다소간의 변동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한다면, '통상의 생활임금을 산정한다'는 평균임금 및 퇴직금 제도의 근본취지가 몰각된다는 점 등을 근거로 피고 회사가 지급해 온 인센티브의 임금성을 인정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.

한편, 이와 반대로 수원고등법원에서는 인센티브의 임금성이 부정되어 회사가 승소한 사례가 있고 현재 이 사건은 대법원에 계류 중에 있는바, 앞으로 향후 진행될 인센티브의 임금성과 관련된 소송의 결과에 많은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보입니다.